

더 던 매거진

그리스도의 임재를 알리는 전령



새벽 잡지

2026년 8월

목차

특집 기사.....	2
교회 - 2부 중 2부.....	2
성경 공부.....	21
예수님과 도마	21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	25
바울이 백성에게 말하다	29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다	33
자색 천 장수 리디아.....	37
『기독교 생활과 교리』	41
주님께서 주신 환상	41

성경을 함께 읽어 보세요!

교회 - 2부 중 2부

**“그[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니, 그는 모든
것의 시작이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 이는 모든 것에서 그분이 첫째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1:18

지난달 『새벽 잡지(The Dawn)』에 실린 “교회”라는 주제에 대한 첫 번째 기사에서, 우리는 “교회”라는 단어의 성경적 의미, 예수님의 첫 번째 강림 이후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는 것”의 의미, 물 세례의 상징,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조직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고찰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다룰 주요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두 사도와 교회의 다른 종들의 역할; 교회의 사명;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천상적 단계와 지상적 단계.

열두 사도

신성한 계획에 따라 오순절부터 시작된 온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열두 사도에게 섬김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10, 14; 에베소서 2:19, 20) 이에 따라 예수께서는 사역 기간 동안 그분과 동행할 열두 사람을 택하셔서, 그들이 그분으로부터 직접 훈련과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들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르톨로메오, 도마, 마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다대오, 시몬, 유다였습니다. 마태복음 10:2-4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다는 신의를 저버렸으며, 성경은 주님께서 그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으로 바울을 택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23-26에는 남은 열한 사도들이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한 사람을 뽑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마티아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내려진 것이었으며, 주님께서 그들의 선택을 인정하셨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 후로 마티아스의 이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그리스어: “apostolos”)라는 단어는 “파송된 자”, 즉 복음의 대표자나 사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넓은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위한 사절”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20) 사실, 성경에서 ‘아포스톨로스’라는 그리스어 단어는 선택받은 열두 사도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지칭할 때도 사용됩니다. (요한복음 13:16; 빌립보서 2:25) 그러나 이것이 그들이 주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이들에게 신성한 임명으로 부여된 것과 같은 높은 권위의 지위를 교회에서 차지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분께 주신 자들로, 신성한 임명을 받은 열두 사도를 언급하셨습니다. 이 특별한 사도들은 그 직분을 위해 서로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유다를 대신할 마티아스를 선택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이들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부활 후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때와 방식에 따라 바울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열두 사도 중 한 사람으로서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열두 사도는 단순한 복음 전도자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기적적인 감동을 받아, 권위와 정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메시지를 말하고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씀은 과거에도, 지금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신성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교회 조직 내에서 차지하는 이러한 권위 있는 지위 때문에, 완성된 교회는 한 도시에 비유됩니다. 이 상징적인 도시는 열두 개의 기초 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며, 이 돌들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14

다른 종들

에베소서 4:11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교회 안에 다른 종들을 세우셨다고 알려줍니다. 사도들 외에도 선지자, 전도자, 목자, 교사를 세우셨습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저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2) 이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였으므로, 그리스도인은 사도들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말씀도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21

그러나 바울이 예언자들을 교회의 종으로 언급할 때는, 이 용어를 훨씬 더 넓은 의미로 사용하여 복음을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이들에게 적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2:28; 에베소서 4:11; 사도행전 11:27, 28; 사도행전 15:32; 사도행전 21:10, 11) 이러한 선지자, 전도자, 목사와 교사들은 모두 교회에서 필수적인 종들이지만, 열두 사도들처럼 영감을 받은 것은 아니며, 사도들이 그랬던 것과 같은 기적적인 방식으로 임명된 것도 아닙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각 교회에 장로들을 세웠다”는 표현은, 그리스어 원문인 ‘ ’에 따르면, 투표와 같이 ‘손을 들어’ 지명하는 것을 더 정확히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14:23) 여기서 분명히 암시하는 바는, 장로와 집사 등 교회의 하급 사역자들은 그들이 섬길 회중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구절에서도 볼 수 있는 성경적 용어인 “장로”는 일반적으로 영적인 측면에서 교회를 섬기는 남성들을 가리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 교사, 전도자, 또는 선지자도 “장로”라는 일반적인 범주에 포함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서 번역된 그리스어 “presbuteros”는 성숙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는 이 용어가 신앙이 확고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인정받는 이를 지칭합니다.

“감독(bishop)”이라는 단어도 신약성경에 사용되며, 교회에서 선출된 남성 사역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단어가 번역된 그리스어 “에피스코포스(episkopos)”는 “총감독” 또는 “감독자”를 의미합니다. 모든 장로는 기회와 능력에 따라 교회 내에서 본래적으로 감독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의 양 떼를 돌보고, 특히 영적인 면에서 그들의 필요를 챙기는 것이 그들의 의무입니다. 디모데전서 3:1, 2; 디도서 1:7

“집사”라는 단어도 초기 교회의 조직과 관련하여 몇 차례 등장합니다. 이는 “심부름을 하다” 또는 “돌보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디아코노스(diakonos)”를 번역한 것입니다. 성경은 집사들이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로서 교회의 물질적 업무를 돕기 위해 임명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 중 최초로 임명된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2-4; 디모데전서 3:8-13

회중이 장로(감독)나 집사로 섬기도록 적절히 선출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성경적 자격 요건은 바울이 디모데전서 3:1-13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격 요건 중 “가르치는 데 적격한 자”라는 표현은 성경에

가르쳐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춘 형제들이 있는 전념한 신자들의 모임은, 규모에 상관없이 성경에 따라 그들을 이러한 사역에 선출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출되면, 이러한 임명은 주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성경은 어떤 기독교인 모임도 종들을 선출하고, 모임을 가지며, 주님의 사역을 수행할 권한을 얻기 위해 모교회에 의존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들이 이러한 면에서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 규모가 클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사도 시대에 많은 교회들, 즉 기독교인 모임들은 신자들의 가정에서 조직되었으며, 그 가정에서 정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로마서 16:5; 고린도전서 16:19; 골로새서 4:15)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그룹—혹은 성경적 의미에서 ‘교회’—로서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이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내려 주신다. 이들은 단순히 손을 들어 표결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일꾼을 선출할 수 있다. 회원 명부는 필요하지 않으며, 성경에서도 그러한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성경에는 초기 교회의 여러 모임이 어떤 성격을 띠었는지를 나타내는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들과 다른 이들은 때때로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더라도 유익한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제별이나 문맥별로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에서, 참석자 모두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질문할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장로가 선출된 경우, 그 장로는 모임이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돕아야 합니다. 기도, 찬양, 간증 모임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이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교회의 사명

교회의 현재 사명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장차 있을 섬김의 사역을 위해 성도들을 온전하게 [그리스어: 온전히 갖추지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12, 13) 둘째, 각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인 품성의 열매와 은혜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22, 23; 베드로후서 1:5-8) 셋째, 지금 곧 임할 그리스도의 축복의 왕국에 관해 세상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14

이 주제에 대한 첫 번째 고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6:18) 제때에 “세워진” 것은 완성 단계에 이릅니다. 교회의 “건축”이 영원히 계속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될 모든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그리스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부름 받아 나온 자들”이며, 이는 현재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개념과는 상반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 받아”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6; 베드로전서 2:9) 그 수는 “적은” “작은 양 떼”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13, 14; 마태복음 22:14; 누가복음 12:32) 약속된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할 때까지 세상 전체를 개종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10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마태복음 16:16) 이 표현은 예수를 구약의 메시아적 약속과 동일시했으며, 베드로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성취하기 위해 보내신 분을 올바르게 인식했음을 나타냅니다.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명확히

이해하려면,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의 약속들을 명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약속들이 성취되는 일에 그분과 동참하기 위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창세기 22:18) 갈라디아서 3:16에서 바울은 이 약속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알려줍니다. 사도는 약속의 후손에 관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갈라디아서 3:27과 29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를 입었느니라. ...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온전히 헌신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되고, 죽기까지 신실하게 행하는 자들이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약속된 “후손”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0

교회의 설립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를 축복하시려는 그분의 계획의 시작일 뿐입니다. 야고보서 1:18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피조물 중 “일종의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 14:4에서도

사용되며, 하나님의 왕국의 하늘의 단계인 상징적인 시온 산에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있는 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요한계시록 14:1; 히브리서 12:22, 23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교회와 세상 모두의 생명의 소망이 죽은 자의 부활에 달려 있음을 매우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한 것이 되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18) 그러나 그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부활에 대한 확신과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기회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22

그런 다음 바울은 부활에 분명한 순서, 즉 단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각 사람은 자기 차례대로: 그리스도는 첫 열매이시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분의 재림 때에 부활하리라.” (고린도전서 15:23) 여기서 언급된 “첫 열매”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에 따라, 그리스어 원문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후, [교회에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이 각자의 순서에 따라] 그리스도의 임재 중에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재림”이라는 단어는 “현존”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파루시아(Parousia)”에서 번역된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가 죄와 죽음을 멸하고, 온 인류가 그분의 흘리신 피로 주어진 생명의 선물을 받아들일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해 통치할 천년 왕국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어지는 바울의 설명은 분명합니다. “그 후에 끝이 오리니, 그 때가 되면 그분은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 드리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리라. 그분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엮드리실 때까지 다스리셔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멸망할 원수는 사망이다.” (고린도전서 15:24-26)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위대하고 궁극적인 목적이며, 교회의 건축이 완성되었을 때 온 인류에게 미칠 ‘그 후’의 한 축복입니다.

하늘과 땅

바울은 부활에 관한 가르침에서, 어떤 이들은 천상의 몸을, 또 어떤 이들은 인간의 몸, 즉 지상의 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히는데, 각 경우를 결정하는 요인은 뿌려지는 “씨”나 “알곡”의 종류입니다. (고린도전서 15:37, 38) 바울이 언급한 “그것”이나 “알곡”은 단순히

한 사람의 정체성, 즉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쌓아온
생각과 성품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온전히 전념하고,
희생적인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사람들은
부활할 때 “천상의” 즉, 하늘의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40) 이는 그들이 현재 지상 생활의
남은 세월 동안 “새 생명” 안에서 행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6:4) 지상에서의 순례 기간 동안
그들은 “위의 것들에 마음을 두는” 법을 배우며,
그들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들은
상징적으로 “하늘에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2; 에베소서 1:3)
따라서 그들은 아직 육신에 있을 때 영적인 성품을
“뿌립니다.” 부활 때, 이들은 하늘의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반드시 악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으로서, 즉 세속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땅의 좋은 것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늘의 것을 갈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이 죽을 때 세속적인
성품을 “뿌리는” 것은 사물의 본질 그 자체이며, 그

결과 그들은 “세속적인 몸”을 가진 인간으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40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첫 부활”로 묘사되는 교회의 부활에 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하며, 비천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하며, 약한 것으로 심고 능력 있는 것으로 부활하며, 육신으로 심고 영적인 몸으로 부활합니다.” 고린도전서 15:42-44

이에 대해 바울은 “육체도 있고 영체도 있다”고 덧붙입니다. (고린도전서 15:44) 다시 말해, 그는 “첫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경험하게 될 본성의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 오직 이들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류는 죽음에서 회복될 것이지만, 그들만이 자연적이고 세속적이며 인간적인 몸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난 자요, 흙으로 된 자이며,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오신 주님이십니다. 흙으로 된 자[인간의 소망과 욕망을 품고 죽는 자들]가 어떠한지, 흙으로

된 자[부활 시]도 그러하며, 하늘에 속한 자[지금 하늘의 것들에 마음을 두는 자들]가 어떠한지, 하늘에 속한 자[부활 시]도 그러합니다.” 고린도전서 15:47, 48

바울은 부활에 관한 이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 ‘죽음이 승리로 삼켜졌다’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 죽음아, 네 독침은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네 승리는 어디 있느냐?”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고린도전서 15:53-55

이처럼 바울은 몇 마디 말로 교회의 소망과 세상의 소망을 모두 제시합니다. 교회의 부활에 대한 소망은 “영광과 존귀와 불멸”입니다. (로마서 2:7) 본성상 불멸을 지닌 인간은 아무도 없다. 그것은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질 상이다. 요한계시록 2:10에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첫 번째 부활에서 이 영광스러운 소망이 결실을 맺도록 이들을 부르시고 준비시키신 일은, 오순절 이후 현재 시대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역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일이 성취되고, 그리스도의 교회, 즉 “몸”의 마지막 구성원까지 영광에 들어갈 때 비로소 죽음의 멸망에 관한 구약의 그 영광스러운 약속들이 성취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오, 죽음아, 네 독침은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네 승리는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55; 이사야 25:8; 호세아 13:14

바울은 이사야서와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며, 인간의 큰 적인 죽음과 무덤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호세아 13:14에 사용된 “무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스올(sheol)”을 번역한 것으로, 신약성경의 그리스어 “하데스(hades)”에 해당합니다. 이 단어들은 여러 곳에서 “무덤”과 “지옥”으로 모두 번역되지만, 이 단어들이 나타내는 의미, 특히 “무덤”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죽음의 상태나 망각을 가리킬 뿐, 문자 그대로의 고통의 장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전도서 9:10; 시편 115:17; 사도행전 2:31)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옥의 문들”—무덤, 죽음—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18

얼마나 놀라운 확신입니까! 죄와 죽음이 지배해 온 동안, 지옥—즉 무덤이나 묘지—은 계속해서 희생자들을 앗아갔지만, 요한계시록 1:18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구속주로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이 열쇠들, 즉 지옥의 문을 열 수 있는 권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분의 교회가 완전히 세워지면, 교회는 그분과 함께 온 인류에게 약속된 생명의 축복을 베풀게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수백만 명이 계속해서 죽음, 즉 성경에 나오는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이 축복을 박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옥의 문은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했고, 그분의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나머지 세상을 이기지 못할 것이며, 아담과 아담 이후로 죽은 모든 사람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신성한 능력으로 이 문들은 활짝 열릴 것이며, 죽음의 모든 포로들은 해방될 것입니다! 이사야 42:7; 이사야 49:9; 이사야 61:1; 누가복음 4:18

이것이 바로 교회의 미래 사역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역이겠습니까! 지금 주님께

충성스러움을 입증해야 할 얼마나 큰 동기가 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일치를 누리고 그분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사는 데서 오는 것보다 더 큰 평화와 기쁨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물론 시련은 있지만, 바울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의 무게”와 비교할 때, 이러한 시련들은 실로 “잠시 동안만” 지속되는 “가벼운 고난”에 불과합니다. 고린도후서 4:17, 18

현재 “부름 받은 자들”, 즉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축복받은 특권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특히 구원의 계획이 지닌 아름다움을 드러내심으로써 그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통해 온 세상이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마련하신 축복, 즉 베드로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께서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회복의 축복을 기뻐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임을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3:21

교회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조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구원 계획을 고려할 때, 그 아름다움의 일부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났기에, 우리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오, 하나님의 풍성함과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큰가!”라고 기록했을 때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결정과 길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분께 조언을 드릴 만큼 충분히 알겠습니까? 또 누가 그분께 그토록 많은 것을 드렸기에 그분이 갚아 주셔야 합니까?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며, 그분의 능력으로 존재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로마서 11:33-36

예수님과 도마

핵심 구절: “그가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네 손가락을 대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요한복음 20:27

선정된 성경 구절:
요한복음 20:24-29

사도 도마는 흔히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0:24)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고 증언했을 때, 도마는 형제들의 말을 받아들이기 전에 증거를 찾고자 했습니다. (요한복음 20:25) 그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상처를 만져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는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또한 인간적인 반응이기도 합니다. 슬픔을 겪은 후에는 새롭게 솟아나는 희망에 현혹될까 두려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직접적인 만남을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20:19, 20

8일 뒤, 제자들은 다시 문을 닫고 안에 모여 있었다. (요한복음 20:26)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두려움을 단번에 없애주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안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스승께서 하신 이 다정한 말씀은 요한, 베드로, 바울의 신약 서신에서 초기 교회를 향한 인사말로 널리 쓰이게 되었다. 도마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서는 방 안의 불안감을 달래주시며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다. 믿음이란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으로 들어오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서는 토마스를 향해 돌아서시어, 우리 본문 구절의 말씀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여기에 대고, ... 네 손을 내밀어 보아라.” 이는 토마스 자신이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27)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의심했던 것은

토마스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모든 제자들은 의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인들이 전한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11

누가복음은 다음과 같은 추가 기록을 전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평안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나 그들은 깜짝 놀라 두려워하며, 유령을 본 줄로 생각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희는 당황하느냐? 왜 너희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느냐?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만져 보아라. 유령에게는 살과 뼈가 없으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에게는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 그분은 그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기쁨과 경이로움에 휩싸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누가복음 24:36-41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과 우리에게 전하신 메시지는 도마에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믿지 말고 믿으라.” (요한복음 20:27) 의심은 혼란과 고통을 초래할 수 있지만, 여기서 문제는 충성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도마는 자신을 예수님께 맡길 것인가, 아니면 계속 주저할 것인가? 믿음은 의문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도마는 주저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라고 극적인 고백으로 응답했습니다(요한복음 20:28). 여기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스승을 주님으로 인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이후 모든 세대를 향해 이 심오한 말씀으로 본문을 마무리하십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요한복음 20:29) 우리는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만져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증언과 성령의 역사,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일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실천합시다.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

**핵심 구절: “믿음과 능력이 충만한 스테반은 백성들
가운데서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더라.”**

사도행전 6:8

선정된 성경 구절:

사도행전 6:7-10; 7:1-60

스테반의 순교는 오순절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초기 교회가 급속히 성장하던 시기에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평화와 성장의 시기는 신자들이 곧 닥칠 시련을 대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스테반의 죽음은 교회에 대한 박해의 시작을 알렸으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죽기까지 신실함을 지켜야 한다는 소명을 보여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0

원래는 교회의 실질적인 필요를 돕기 위해 선택된 스테반은, 탁월한 영적 힘과 재능을 지닌 사람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사도행전 6:5). 주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사랑, 열정은 그를 진리의 효과적인

증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지혜와 거룩한 영은 너무나 뛰어나서, 반대자들은 그를 상대로 논쟁에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6:10

그의 논리를 이겨낼 수 없었던 원수들은 거짓되고 왜곡된 증언을 통해 그를 산헤드린 앞에 세웠다. 사형에 이를 수도 있는 혐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두려움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순결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드러났다. 기록에 따르면, 공의회에 앉아 있던 모든 사람이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음을 보았다.” 사도행전 6:15

사도행전 7:2-53에 기록된 공의회 앞에서의 스데반의 연설은 용기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깊은 지식을 모두 보여주었다.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청중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를 거부한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지적하였다. (사도행전 7:51-53)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격분했다. 스데반은 그들의 분노가 치솟아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버텼다. 그는 하늘의 영광을 보는 환상을 받았으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선포했다. 이 말은 고발자들을 자극하여 재판을 끝내고 그를 돌로 쳐 죽이게 만들었다. 타르수스의

사울도 그 자리에 있었으며, 그 행위에 찬성했다.
사도행전 7:54-60

죽어가는 순간, 스테반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그들의 죄가 그들에게 돌리지 않도록 간구했다. 이 점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반영했다. 60절은 그의 죽음을 ‘잠’으로 묘사한다. 스테반은 부활을 굳게 믿었으며, 때가 되면 죽음의 ‘잠’에서 깨어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는 표현은 구약성경에 거의 40번이나 등장하며, 죽음의 잠을 가리킵니다.

사탄에게 괴로움을 당하던 욥은 부활의 아침이 올 때까지 죽음의 잠 속에서 안식을 얻기를 간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무덤에 숨겨 주시옵소서! 당신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덮어 주시기를! 무덤에서 지낼 시간을 정해 주시고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시기를!”(욥기 14:13) 예수님께서서는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인자의] 음성을 듣고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욥의 말을 확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28, 29

스테반의 신실한 증언은 후대의 신자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박해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신실하게 고난을

겪으라는 부르심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스데반은 오순절 이후 성경에 기록된 기독교 시대의 첫 번째 이기는 자로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신실한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0:6) 그의 삶과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말하고, 용기를 내어 굳건히 서며, 주님을 바라보는 데 집중하도록 격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백성에게 말하다

핵심 구절: “그가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사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느니라. 이는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증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행전 22:14, 15

선정된 성경 구절:

사도행전 22:1-21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형제들 앞에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회심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타르수스의 사울(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은 당시 주님의 제자들에게 큰 의아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초기 교회 지도자들과 사울 사이에는 노골적인 적대감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를 오직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자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울의 출생지, 교육, 그리고 배경이 그를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학식이 풍부하며, 신앙심이 깊었고, 바리새인 가문 출신이었다. 그는 율법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열정적으로 지켰다. (사도행전 26:2-5; 빌립보서 3:4-6) 그는 초기 교회가 당연히 그를 보았던 것처럼 악한 사람이 아니라, 행동에 있어 진실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기독교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반대한다고 믿었기에, 선한 양심에 따라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바울은 진실했으나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기에, 주님께서는 그가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그를 멈추게 하셨다. 그의 열정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을 섬기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이것은 타락한 사람의 회심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의 바로잡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세우시려 하셨다.

하나님께서서는 누구에게도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시지만, 정직한 마음에는 그분의 진리를 열어

주십니다. 사울은 판단은 잘못되었으나 의도는 옳았기에, 주님께서는 그의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바울이 회상하기를,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밝은 빛이 그를 둘러싸자 그는 눈이 멀어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가 말씀하시는지 묻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사도행전 22:6-8). 이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과 얼마나 밀접하게 하나 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그분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모든 성도를 대하는 우리의 행동을 인도해야 합니다.

사울은 즉시 “주여,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22:10) 이는 그의 뜻을 완전히 내어드린 것이었습니다. 일단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깨닫자, 그는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그분께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신자들도 같은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한때 오류로 인해 눈이 멀었으나 진실한 마음을 가진 이들은, 진리에 대해 감사와 열정, 그리고 섬김의 삶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을 다마스쿠스로 보내셨는데, 그곳에서 존경받고 경건한 제자 아나니아는 이 새로 회심한 자가 이방인과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 소명을 위해 고난을 겪도록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한 영광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한 확신으로 알기에 충분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2:11-13)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오늘의 핵심 구절에 담긴 말씀을 전하여, 그를 “모든 사람에게 증인”으로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사명에 나서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신실한 증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먼저 스스로 이해해야만 다른 이들에게 신실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시다.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다

핵심 구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상기시켜 주노니,
내 안수함으로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태우라.”

디모데후서 1:6

선정된 성경 구절:

디모데후서 1:1-14; 3:14,15

사도 바울에게는 친자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내 친아들”이라고 다정하게 부른 것은 그의 깊은 애정을 보여줍니다. (디모데전서 1:2) 그는 모든 신자들을 자신의 영적 자녀로 여겼으며, 오랫동안 그 곁에서 충성스럽게 섬겨 온 디모데에 대해서는 특히 그 감정이 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한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 특히 진리를 갓 믿기 시작한 이들에게 주는 건전한 조언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삶을 주님과 그분의 사역에 전념하고, 각자의 재능과 기회에 따라 주님의

사역자나 종으로서 유익하게 쓰임받기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더욱 큰 울림을 줍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무렵, 디모데에게 전한 것입니다. 디모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사도와 함께 수년 동안 수고해 온, 아마도 40세 전후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으며, 그곳에서 그의 이름을 딴 서신들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사도직을 상기시키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은혜를 입음으로써 주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 약속의 조건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3-20; 22:14,15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이 맑다는 점, 디모데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에베소에서 헤어진 후 다시 그를 만나고 싶은 소망을 언급합니다. (디모데후서 1:3, 4) 두드러진 지위에 따르는 위험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은 디모데에게 겸손하고 신실하며 성경에 굳게 뿌리내리도록

격려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13)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능력 안에서 굳건히 서야 했습니다.

바울은 또한 디모데에게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진실한 믿음과 경건함을 상기시키며, 이러한 유산이 그의 마음에 견고한 기초를 놓았음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5) 다른 성경 구절들에서도 경건한 부모가 자녀에게 인격의 기초를 마련해 주면, 그 위에 유익한 삶을 세울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6,7; 잠언 22:6; 에베소서 6:4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태우라”고, 즉 새로운 힘으로 다시 불을 지피라고 격려했습니다. 또한 그는 디모데에게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하나님의 영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마음의 영”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6, 7) 이러한 영은 용기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 대한 사랑 어린 헌신, 그리고 열정을 발휘할 때의 현명한 판단력을 낳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이 영을 점점 더 얻어, 주님을 섬기는 일에 두려움 없이 지혜롭게 자신의 재능을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디모데후서 3:14, 15에서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으며, 이 가르침이 구약의 “거룩한 성경”과 예수님 및 영감을 받은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 그에게 전해졌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용기를 얻었듯이, 우리도 이 사랑하는 사도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읍시다.

자색 천 장수 리디아

핵심 구절: “티아티라 성에서 온,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줏빛 옷감 장수 리디아라는 여인이 우리의 말을
들었는데,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사도행전 16:14

선정된 성경 구절:

사도행전 16:11-15, 40

오늘의 교훈은 유럽에 복음이 전파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친 후 실라와 친분을 쌓았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시리아, 실리키아, 데르베, 루스드라를 거쳐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이 지역들에서 사도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통해 이미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5:40, 41; 사도행전 16:1, 4

이 시점까지 선교 사역이 큰 성과를 거두자, 바울은 소아시아를 거쳐 북쪽과 동쪽으로 여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이 이 계획을 방해했고, 결국 사도는 주님께서 이러한 시도를 막고 계신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꿈 속에서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처럼 차려입은 한 남자가 자신을 부르며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인 바울은 즉시 유럽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6:6-10) 이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모든 관심사에 대한 하나님의 감독이 분명히 드러난 증거였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인 빌립보는 성경 기록상 유럽에서 복음이 처음 전파된 곳입니다. 바울과 동행자들은 성문 밖 강가에서 매 안식일마다 열리는 작은 종교 모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기도 모임이자 예배와 교제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여성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12, 13

이 여성들 중에는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던” 리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색 천 장수”라는 표현은 그녀가 염료 제조업에 종사했음을 의미합니다. 고대에는 염료가 상당히 비쌌기 때문에, 염료 제조 기술을 아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리디아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리디아는 마음이 열리고 깨달음의 눈이 밝아졌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헌신하여 그 복음을 따르도록 이끌렸습니다. 그 후 그녀는 “그와 그녀의 온 집안”이 물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헌신을 상징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사도행전 16:14, 15

복음을 받아들인 후, 리디아는 바울과 그의 동행자들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함으로써 자신의 집과 자원을 주님의 사역에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환대를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주님의 종들을 맞이함으로써 그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곳에서 진리의 사역을 강화했습니다. 사도행전 16:15

리디아의 환대는 겸손과 올바른 영적 예의를 가르쳐 줍니다. 바울과 그의 동행자들은 그녀와 그녀의 가정에 영적인 가르침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억지로 끼어들거나 지원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주님께 충실한 사람으로 여긴다면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진심으로 청했습니다. 이는 섬기려는

그녀의 간절한 소망과, 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던 바울과 그 일행의 신중한 태도를 모두 보여줍니다.

리디아의 본보기는 하나님께서 한 명의 헌신적인 개인을 훨씬 더 큰 신성한 계획 안에서 사용하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주님을 위해 행하는 진심 어린 섬김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준비된 마음, 신실한 가정의 영향력, 그리고 환대하는 마음가짐은 모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환상

“나는 하늘에서 본 환상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6:19

성경이 기록되던 시절,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주신 많은 지시와 경고, 그리고 그분의 계획과 목적에 대한 계시는 “환상”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이러한 환상들은 항상은 아니더라도 종종 기적적인 성격을 띠었으며, 너무나도 강렬하여 그것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어진 정보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환상은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이나 타인, 혹은 둘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데 주님과 협력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성경에서는 환상을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훑어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음성에 대한 순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그리고 불순종이 초래할 심각한 결과가 무엇인지 충분히 깨닫게 됩니다.

구약의 환상

하나님께서서는 노아에게 다가올 대홍수에 대해 알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13-18; 히브리서 11:7)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어,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시겠다는 뜻을 알려 주시고, 자기 백성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 주실 땅으로 가라는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주님과 의 이러한 만남을 통해 얻게 될 축복은 아브라함이 이 지시에 순종하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창세기 12:1-3

하나님께서서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를 백성의 위대한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가 환상을 받았을 때 그가 서 있던 땅조차 거룩해졌거나 성별되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해 당신의 종에게 그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1-10) 그 이후로 모세가

주님의 지속적인 은총을 누리려면, 그 환상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선지자 이사야는 “높이 들리신” 주님을 보는 환상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6:1, 8) 이 환상 속에서 이사야는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리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라고 물으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선지자의 대답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였습니다. 이 지시는 주님께서 고대 시대에 당신의 백성에게 베푸신 대부분의 환상이 지닌 의미였으나, 항상 그렇게 명백하게 표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약성경의 환상

신약성경에서 언급된 가장 주목할 만한 환상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3:16, 17; 요한복음 1:31-34) 여기서 예수님은 서른 살의 나이로 지상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는데, 그 뜻은 “책의 두루마리”, 즉 구약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었습니다. (시편 40:6-8; 히브리서 10:5-9) 주님을 인도하기 위해 구약성경에 기록된 모든 지침은 성령의 직접적인 감동 아래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그 의미를 해석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지성조차도 그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계시, 즉 환상이 주어져야만 했으며, 하늘이 그분에게 열렸을 때 그분은 바로 이러한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에 관해 기록된 일들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의미가 드러나자, 그분은 주저함 없이 그 일들을 수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늘의 환상을 순종하기 위해 치르신 대가는 얼마나 컸던지요! 그분의 사역 기간은 짧았고, 매일매일이 지치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분은 원수들에게 모욕을 당하셨고, 친구들에게 오해를 받았으며, 죄인들이 일으킨 거대한 “반대”는 결국 그분의 체포와 재판, 그리고 잔혹한 십자가 처형으로 이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2:3) 이것이 바로 그 환상의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은 “도살당할 어린 양처럼” 끌려가셔야 했습니다. (이사야 53:7) 그분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육신을 바치셔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1:29; 6:51) 그분은 “고통을 아는 자, 슬픔에 익숙한 자”가 되실 운명이었습니다. (이사야 53:3)

그분은 이 모든 어려운 경험 속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극심한 고통의 시련을 겪으시는 중에도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웠습니다. 히브리서 2:10; 5:8

순종의 대가를 상쇄하기 위해, 주님은 목숨을 바치시는 그 순간에도 풍성한 상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이 경험하신 평화와 기쁨은 그분이 치르시는 희생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27) 참으로, 바로 이 가 그로 하여금 “그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순종하고, “십자가를 견디며 그 수치를 멸시”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2) 물론 이것은 미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에 대한 기대와 약속된 상을 반드시 받으리라는 완전한 확신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현재의 평화와 기쁨을 예수님께 주었습니다. 따라서 그분이 “고통의 사람”이셨을 때에도, 의심할 여지 없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평화 속에 계셨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그분의 힘이었습니다. 느헤미야 8:10

바울의 환상

타르수스의 사울은 처음에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바를 잘못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열심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잘못된 방향으로 봉사하러 나갔던 바로 그 여정에서, 그는 서두 본문에서 언급된 그 계시적인 환상을 보게 되었으며, 후에 그는 그 일에 대해 불순종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바로 이 환상이 사울을 잘못된 길에서 멈추게 한 것이었다. 이 환상은 그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나누는 자로서 차지해야 할 위치와, 이방인의 사도로서 수행해야 할 사명을 밝혀 주었다. 사도행전 9:1-16

그리스도를 위한 바울의 지상 사역에 관해, 그 사역이 바울에게 지닌 깊은 의미를 가장 간결하게 요약한 것은 아마도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그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고난을 겪게 될지를 전하라고 명하셨을 때의 말씀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9:16) 하늘에서 받은 환상에 순종하는 것은 바울에게 큰 고난을 의미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23-28; 12:7-10) 그러나 그는 이를 기뻐했습니다. 그 환상은 그가 위대한 메시아적 대의를 위해 주님과 함께 고난을 겪을 특권을 가졌음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24

이러한 고난은 환상에 대한 그의 순종, 즉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그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순종 때문에 찾아온 것이었다. 아그립바에게 자신이 그 환상에 불순종하지 않았다고 선언한 후, 바울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먼저 다마스쿠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다음 예루살렘과 온 유대 전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며, 선한 행실로 자신이 변화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26:20) 바울은 왕에게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동족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도행전 26:21) 그 결과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로부터 계속 박해를 받았으며, 마침내 이 땅에서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디모데후서 4:7, 8; 사도행전 20:17-25

바울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자신의 가장 높은 영적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닌 어떤 일도 자신의 삶에 들어오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과 영혼의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환상에 순종하여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으로부터는 결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든, 이방인의 신전이든, 배 위든, 감옥이든, 그의 삶을 사로잡은 유일한 열정은 그 하늘의 환상이 지닌 의미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었다. 그에게

게시된 지식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교회와 세상의 소망이 구속주이신 그분께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환상은 또한 그리스도를 모든 원수, 심지어 가장 큰 원수인 죽음까지 그분의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다스리실 분으로 밝혀 주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5-7; 고린도전서 1:23; 15:25,26

바울의 신실함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제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였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선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27) 그는 믿음의 충실한 수호자였으며, 교회 내의 육신적인 기풍에 대해 거침없이 반대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참된 머리이심을 강조했으며, 형제들이 “나는 바울의 편이다” 또는 “나는 아폴로의 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4

세대의 끝

바울과 베드로, 요한의 예언들은 모두 현 시대의 말일에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주님 자신의 증언도 이와 같은 취지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재림과 재림 시의 임재 방식에 대해

설명하시며, “번개[그리스어: 밝게 빛남]가 동쪽에서 번쩍여 서쪽까지 비추는 것처럼, 인자의 오심[그리스어: 임재]도 그러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27) 예수님께서 자신의 임재의 날에 진리의 빛이 점차 밝아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신 새벽의 비유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비록 이 밝아움이 점진적이었지만, 결국 그분의 임재가 지닌 완전하고 맑은 광채는 모든 악과 무지, 미신, 그리고 죄의 어둠을 몰아낼 것이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님의 임재로 인해 “주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온 땅을 가득 채울 것임을 확신하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임재의 빛으로 가장 먼저 비추심을 받는 이들입니다. 하박국 2:14

예수께서는 말세에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어질 진리에 대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자신이 돌아오실 때 그들에게 “때에 맞는 양식”을 대접해 주시겠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45-47; 누가복음 12:37) 예수님과 사도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이 시기의 주님의 백성들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될 것이라는 축복을 기대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을 밝히셨던 것과 같은 기적적인 방식으로 이 말세의 계시를 주실 것이라고 암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목적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종류의 추가적인 계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언에 명시된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별한 이해가 주어졌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밝혀내야 할 것은, 이 이해가 과연 하나님의 계획이며, 수세기 동안 이어진 암흑기 동안 대부분 잊혀졌던 그 계시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약속과 예언들과 조화를 이루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진리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인간의 구속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이해하는 데 있어, 우리는 단지 하나 또는 몇 가지 개별 교리만을 살펴보는 것으로 진리와 오류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 우리가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 주제와, 그 계획의 모든 세부 사항이 지향하는 위대한 목표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예언과 약속을

탐구해 보면 무엇이 드러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대항하여 일으킨 반역을 진압할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며, 인류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생명을 받아들임으로써 완전함으로 회복되어 영원히 살게 되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며 이 위대한 주제를 요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10) 선지자 이사야는 이 신성한 목적의 성취가 연약한 육신의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권이 그[예수] 어깨에 있을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실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9:6,7

이 위대한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 전반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성한 목적이, 인간의 궁극적인 축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의 청사진임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수세기 동안 성경의 이 근본적인 진리에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다스리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대신, 교회와 국가를 통합함으로써 인간이 만든 왕국이 점차 세워졌습니다. 이를 ‘기독교 세계’라고 불렀으며, 비록 그 체제의 권력과 영향력은 이제 훨씬 줄어들었지만, 그 기반이 되었던 근본 원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 그분의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듯합니다. 그 결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열방을 축복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인간의 도움 여부와 상관없이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망—그리고 깨달음

이 시대의 끝에서 진리가 대대적으로 계시되기 전, 19세기 전반의 윌리엄 밀러(William Miller)를 비롯한 예언 연구자들은 시대의 징조와 특정 예언들을 통해 주님의 재림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이 손과 발에 못 자국이 남은 인간으로서 오실 것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기대에 차고 실망해야만 했다. 그들은 그분이 세상의 생명을

위해 육신을 바치셨고,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광스러운 신성한 존재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간과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분이 재림하실 때, 그분은 “도둑처럼”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임하실 것이며, 예언의 성취를 “지켜보며” 주목하는 자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분을 알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15; 마태복음 24:42, 43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800년대 후반, 한 무리의 진지한 성경 연구자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예언들을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위대한 진리 중 하나는 주님의 재림 목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지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인류를 다시 살리기 위해 재림하실 것임을 보여주었으며, 예언된 세상의 종말은 실상 현재의 악한 사회 질서의 종말이자,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찬 세상”이라는 새로운 질서의 수립임을 밝혀 주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13) 사도행전 3:20, 21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 기간 동안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만물을 회복하실 때”라고 묘사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증언하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자 비전이었으며, 성서()에 기록된 대로 선지자들을 통해 베드로와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오늘날의 비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져 우리가 기뻐하고 있는 진리의 환상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그 백성에게 주신 모든 위대한 환상의 의미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이 환상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 세상의 종말에 관한 자신의 경험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자의 날들”, 즉 이 “현재의 악한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시기를 예표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다. (마태복음 24:37-39; 갈라디아서 1:4) 그러나 노아에게 다가올 대홍수에 대해 알려주시고, 그와 관련하여 섬길 특권을 허락하신 것은 축복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시겠다는 뜻을 알려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이 축복의 “후손”이, 예수님과 그분과 함께 고통받고

죽어서 그분과 함께 살고 통치하게 될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로 이루어진 믿음의 후손이 될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16, 27-29

모세는 타오르는 떨기나무를 보고, 자신이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경외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야 할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 인류에게 임할 더 큰 구원과, 새 언약의 조건 아래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될 일에 대해서는 거의 통찰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처럼 ‘보다 더 위대한 분’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이 예언과 다른 예언들이 내포하는 의미를 아주 명확히 이해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신명기 18:15-19; 사도행전 3:22-26; 사도행전 7:37; 히브리서 12:18-24

이사야는 “높이 들리신” 주님을 보았고, 그 광경을 통해 그토록 높으시고 거룩하신 분의 뜻을 행하도록 영감을 받았으나, 그가 본 하나님의 형상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신성한 성품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누리는 특권처럼, 그가 환상 속에서 본 “세라핌”에 그토록

적절하게 표현된 하나님의 속성들—그분의 지혜, 공의, 사랑, 그리고 능력—의 경이로운 깊이와 조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6:1-8

예수님께 하늘이 열렸을 때, 그분의 지상 사역의 목적, 즉 인류를 위해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한다는 구약의 예언들이 그분께 드러났습니다. 당시에는 제자들에게 그 일들을 온전히 설명해 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자들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12) 훗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의 의미에 관해 성경을 풀어 주셨을 때, 제자들은 그 일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가복음 24:32

오순절이 되어서야 그 환상의 의미가 교회의 “부름”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36-39) 그제서야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죽는, 즉 이 시대의 “더 나은 제사”에 동참하는 특권을 더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23) 이 귀중한 진리는 암흑기 동안에도 간과되었으나,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환상의 일부입니다.

바울이 거역하지 않았던 그 환상은 그 모든 함의에서 영광스러웠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방인들을 포함하도록 진전되었으며, 그들에게 왕국의 약속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될 기회를 베풀어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2:11-22) 그 후, 바울은 다른 환상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제삼의 하늘”과 “낙원”—“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끌려 올라갔으며”, 그때는 때가 아니었기에 말해서는 안 될 것들을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1-4; 베드로후서 3:13) 오늘날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제삼의 하늘”을 볼 수 있으며, 바울이 “낙원”에서 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미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목적과, 온 인류가 지상의 생명과 평화가 온전한 전 세계적인 에덴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51:3; 에스겔 36:33-36) 바울은 자신이 본 것을 선포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계시를 통해 곧 세워질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4:14; 디모데후서 4:2

진리에 대한 책임

앞서 언급했듯이, 고대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환상을 주셨을 때, 그것은 사역을 위한 위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진리의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사역의 위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이 “거룩하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여겨지는” 것이 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조건과 자격을 포함하는 위임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2:1

우리는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사역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기” 위해(이사야 61:2)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우리의 발이 신속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혀를 사용하여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 환상의 올바른 정신을 마음속에 새긴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쓰이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해의 눈을 열어 주셔서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신 분께 우리가 드릴 말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바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의 비전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순종에 포함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한다고 기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5) 이보다 부족한 것은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빛을 비추는 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한 의의 여러 가지 요건들을 제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16; 빌립보서 2:15) 그러므로 우리도 진리의 능력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비전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이 따르더라도 기뻐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동안 신실합니다.